

요코쿠라 계단식 논

수천 년 동안 일본의 농가는 다양한 종류의 지역 삼림을 관리해왔다. 사토야마라고 불리는 이 삼림지대는 이 지역의 유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삼림에서 벌채된 목재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낙엽은 훌륭한 비료가 되었다. 숲에서는 버섯과 산채를 수확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산에서 얻은 재료들은 때로는 주역이 되어 시골 요리의 풍미를 더하고 깊은 맛을 선사해 주었다.

요코쿠라 계단식 논은 사토야마 시스템의 훌륭한 예다. 시라카미 산지에서는 물은 너도밤나무에 의해 모아져 이윽고 지하수면으로 들어가거나 개울과 하천이 되어 산에서 흘러내려간다. 빗물과 눈 녹은 물이 요코쿠라 위쪽 산에 고여 계단식 논 위쪽으로 솟아난다. 용수가 대단히 풍부해 아래쪽 논을 관개하는 데 사용되고, 계단형 지형인 단구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벼농사에 필요한 수위를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요코쿠라 계단식 논은 아키타현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50 개의 논 지대 중 한 곳이며, 얼마 남지 않은 농가가 논을 유지하고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아키타에서 시라카미 산지는 이를 둘러싼 대부분의 땅에 대해 사토야마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너도밤나무는 많은 양의 물을 땅으로 돌려보내고 농가에서 이를 이용한다.